

▶ 내신 기출 독서 비상 ◀

1. 나를 기르는 독서

- (1)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40문제) ----- 1쪽
(2) 우리는 행복한가 (59문제) ----- 19쪽

2. 소통하는 독서

- (1) 미세 먼지의 실체 (51문제) ----- 45쪽
(2)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45문제) ----- 69쪽

3.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 (1)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43문제) ----- 93쪽
(2)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29문제) ----- 113쪽
(3) 미안합니다 (11문제) ----- 129쪽

4.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

- (1) 나는 누구인가 (46문제) ----- 138쪽
(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24문제) ----- 160쪽
(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36문제) ----- 172쪽

5. 세상과 만나는 독서

- (1)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45문제) ----- 193쪽
(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44문제) ----- 211쪽
(3)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15문제) ----- 232쪽

6. 정보를 활용하는 독서

- (1) 세계 속의 1등, 양궁 (30문제)----- 242쪽
(2) 인공 지능의 미래, 딥 러닝 (31문제)----- 259쪽
(3) 노블레스 오블리주 (8문제)----- 277쪽

◆빠른 전체 정답 -----284쪽

◆해설 -----288쪽

교재 버전: 2021.02.20

▶ 내신 기출 독서 비상 ◀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비상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독서 비상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망망의 꿈 한없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1-(1)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제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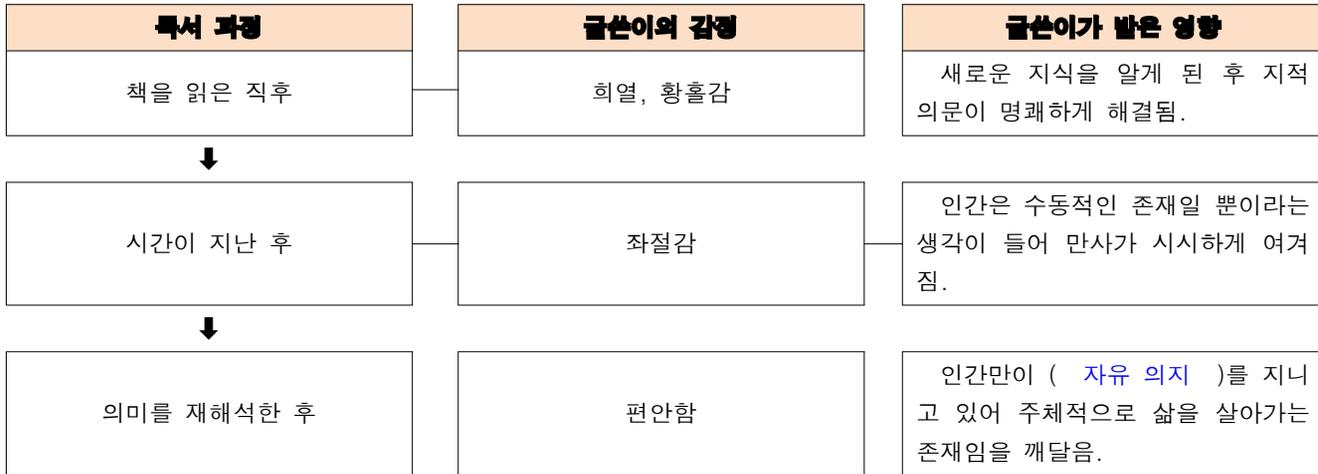
갈래	(수필)	성격	자전적, 체험적, 교훈적
제지	독서		
주제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로 인한 내면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 독서를 통해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을 서술함. 		

제지 구조도

처음	『사회 생물학』 과의 만남
공간 1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지적 의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었을 때 느낀 희열
공간 2	시간이 지난 후 느낀 좌절감과 『이기적 유전자』를 재해석하고 난 후의 깨달음
끝	독서를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과 노력하는 삶에 대한 다짐

핵심 강의

1.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받은 영향



2. 「이기적 유전자」를 통한 글쓴이의 깨달음

학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며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야 함.
삶	주어진 삶의 길을 최선을 다해 힘껏 노력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이다. 이미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 주는 듯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 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디엔에이(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나)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는 사회 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위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 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 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짝물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렸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공공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B)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향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 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 최재천,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개성고등학교 (부산)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심리 변화 과정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황홀감→좌절감→경외감
- 황홀감→시시함→좌절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 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디엔에이(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같았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는 사회 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위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 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 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짝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렸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향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제 아닐 거야.’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다치는 대로 읽었다.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화가 열리면 파지지 않고 참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룬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 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 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큼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

각해 보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 최재천, '과학자의 서재'

인향고등학교 (인천)

6. 다음은 윗글의 필자가 윗글을 작성하기 전에 메모한 것이라고 할 때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제재] 독서

[주제] 독서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

[주요 내용]

- 책을 통해 삶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찾은 황홀감
- 유학 생활의 실망감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태도
- 좌절을 느낀 경위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
- 자유 의지를 통해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깨달음
- 책을 통한 깨달음과 삶에 대한 긍정

인향고등학교 (인천)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은 ㉡에게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 ㉠은 ㉡의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도록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 ㉠은 ㉡의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은 ㉡의 고민에 대해 자신이 해 보았던 경험 중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은 ㉡의 고민 해결에 대한 상대측 계획에 대해 실현 불가능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8. ㉠~㉡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 :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딪히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
- ㉡ : 자동차 뒷바퀴가 진구렁에 빠졌다가 겨우 헤치고 나왔다
- ㉢ : 사회과학에 파고든 친구는 연구자로 성공했다.
- ㉣ : 그는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록으로 정리했다.
- ㉤ : 관중의 함성이 경기장을 흔들어 놓았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9. ㉢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

<조건>

- ◆ ‘인간의 삶은’을 주어로 작성할 것.

충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 주는 듯했다.

(나)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디엔에이(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라)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는 사회 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위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 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 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짝 물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마)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렸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 최재천, 「과학자의 서재」중

충주대원고등학교 (충북)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글쓴이의 영어 실력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졌으므로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이기적 유전자’에 몰입하여 책을 읽었다.
-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DNA의 생존에 기여하는 대상일 뿐이며,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그 날 굉장한 희열을 느꼈다.
- 글쓴이는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글쓴이가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것도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면서 겪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충주대원고등학교 (충북)

11. 윗글 ㉠~㉥ 중에 이질적(異質的)인 것은?

- ㉠
- ㉡
- ㉢
- ㉣
- ㉤
- ㉥

충주대원고등학교 (충북)

12. 윗글 (라)의 ㉔‘우리’가 누구인지를 쓰고, 그 ‘우리’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수업에서는 「사회 생물학」이라는 엄청난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 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나) 그런데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이다. 이미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 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디엔에이(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 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라)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짝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렸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마)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 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해설>>

20.①

▶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 있어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21.①

ㄴ: (가)도 사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ㄷ: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인용은 없음. ㄹ: 질문을 던진 후 답을 제시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독자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가)에만 해당.

22.③

▶ ㉠: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임.

23.④

▶ (나): 종교적 금기를 통해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것임.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3.④

▶ (가)는 3인칭 관찰자 시점임.

4.⑤

▶ (나)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소재로 일상생활의 감수성을 표현하여 수필의 자유로운 상상 보여주고 있다.

6.③

▶ 일상적인 사물을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한 것이지, 개인적 체험에서 깨달은 바를 일반화한 것은 아님.

7.①

▶ ㉠은 속담(진주 열 그릇이라도 펜 후에 구슬)을 인용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8.⑤

▶ 의인화된 인물들 간의 말다툼을 통해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함.

10.⑤

▶ '규중 부인'은 질책하고 핀잔할 뿐이지, 변화하는 여성 의식을 보이는 것은 아님.

11.①

▶ ㉠: '올 남자'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것이지, 고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

12.⑤

▶ ⑤는 유추, 나머지는 의인법이 사용됨.

14.⑤

▶ ㉠, ㉡처럼 ㉠도 ㉡에 대한 원망(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을 표출하고 있는데, ㉡에 대한 불만(간사하고 흉악한 감투 할미가 만류하니)도 표현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15.③

▶ 청홍흑백 각시의 불만은 없음.

16.④

▶ ㉠: 시삼촌이 북경을 다녀온 후 바늘을 글쓴이에게 준 것 이므로 글쓴이가 바늘과 처음 만나게 된 장소가 북경이 아님. ㉡: 글쓴이는 자녀가 없음, ㉢: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바늘이 부러진 것이므로 바늘이 부러진 시간대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후로 볼 수 있음.

17.③

▶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 *㉡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이유를 꼭 붙여야(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딸리게 하다)

18.①

ㄷ: 대상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없음. ㄹ: 설의법에 직유법이 포함된 것은 아님.

20.①

▶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므로 ①이 적절함.

21.②

▶ 규중 부인은 질책할 뿐이지 성찰하는 것은 아님.

25.③

▶ 지식인층 여성이 한글로 쓴 내간체 수필이다.

26.④

▶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는 이는 올 남자임.

27.⑤

▶ <의복의 옷감을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 내면 자기 공이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음.

■ 풍수지탄(風樹之嘆):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나 이미 돌아가심을 한탄함. ■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새겨 놓을 만큼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원한. ■ 권불십년(權不十年):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함. ■ 자화자찬(自畫自讚): 자신이 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

30.④

▶ (나)와 달리 (가)는 두 대상(척 부인-교두 각시, 교두 각시-세요 각시……)의 비교를 통해 대상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1.⑤

▶ 규중 부인은 감투 할미의 사죄 받아들인 것일 뿐이지, 진정한 벗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님.

32.③

ㄱ: 척 부인은 불평을 할 뿐이지,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호

<<해설>>

들갑스러운 것은 아님. ㄹ:

33.㉔

▶칠우들이 논쟁하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여성이 지녀야 할 덕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님.

34.㉑

▶㉑은 <술에 취해 허리띠로 뱀 흉내를 내는, 별난 친구의 주인>을 통해 알 수 있음.

36.㉕

▶<보기1>은 벼슬길 복귀가 아닌, 자연 속의 즐거움을 노래함.

5-(1)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1.㉔

▶어떤 재화에 대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싸게 살수록 소비자 잉여가 높아지기에 ㉔는 적절함.

2.㉓

▶삼각 김밥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줄 경우, 개당 가격은 낮아지기에 지불 용의 가격도 낮아지는 셈이다.

3.㉓

▶A의 소비자 잉여가 제일 높기에 만족감이 가장 큼.

4.㉓

▶㉓은 큰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제값으로 열차를 이용했기에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큼.

7.㉓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을 제시한 것뿐,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소개한 것은 아님.

10.㉕

▶특정 개념(소비자 잉여)을 정의하고 관련된 예시(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 그 특성을 설명한 뒤 그 가치를 밝히고 있다.

11.㉑

▶지불 용의 가격이 높으면서 낮은 가격의 소비한 경우가 더 많은 소비자 잉여를 누림.

12.㉔

▶지불 용의 가격이 없기에 ㉑이 발생하는 사례가 아님.

14.㉑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을 제시할 뿐이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소개하는 것은 아님.

16.㉕

▶A, B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다름.

19.㉓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라는 두 차례 가격을 치르게 되며 이때 놀이 기구를 이용하는 것에 비례해 가격을 부담시키기에 이부가격설정의 사례에 해당함.

21.㉓

▶알기 쉬운 예(80일간의 세계일주)를 통해 중심 화제(소비자 잉여)의 이해를 돕고 있다.

24.㉔

▶사과 가격이 500원보다 내려도 A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B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크다.

27.㉓

ㄷ: 독점 시장에서나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음.
ㄹ: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려면 포그가 생각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함.

28.㉓

▶㉓: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은 구매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30.㉕

▶만약 C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이 2000원이라면 C소비자는 A소비자보다 500원 더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다.

32.㉑

▶포그가 아우다 부인을 구한 목적은 알 수 없음.

37.㉕

▶전문가의 견해는 없음.

38.㉔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를 통해 ㄱ,ㄹ이 ㉑의 전제 조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40.㉕

▶포그가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높은 지불용의 가격을 갖는다.

41.㉔

▶ㄴ,ㄹ 은 일반적인 가격으로 이용함.

5-(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1.㉓

㉑: 용어의 개념 정의는 없음, ㉒: 통념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여 열거하는 것은 없음.

2.㉕